10.15686/fkl.2022..57.39 OPEN ACCESS

학살된 ‘양민(良民)’, 그리고 여성들
—노근리 사건 이후를 그리는 이현수 소설의 의도된 산만함에 관해

이한나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전쟁의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눈물”
—노근리 사건을 재현하는 방법
3 ‘선량한 국민’의 복원, 그리고 회복의 정치학이 남긴 것들에 대하여
4 ‘버들이’가 ‘빠들네’가 되기까지
—학살 이후의 곤경을 마주하러 가는 길
5 나가며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389). 2022년 10월 29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문학포럼, 한국여성문학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하반기 학술대회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젠더폭력의 기록과 기억의 현장들〉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에 관한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및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문초록

이현수의 소설『나흘』은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인 '노근리 사건'을 다룬다. 고향 영동으로 돌아온 다큐멘터리 감독 김진경이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마을의 과거를 살피며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은 기존 관점에서는 노근리 사건이 굳건히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러 서사가 여기에 중첩되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적된다. 이 소설을 두고, 본고에서는 노근리 사건 '이후'를 그리는 이 작품이 '산만함'을 경유하여 가리키고 있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좇는 과정이 왜 산만하게 에둘러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학살된 '양민(良民)'의 곁에 놓인 여성 화자를 좇아 묻는 이 글은,『나흘』이 '김진경'과 '뻐들네'라는 두 인물로 학살 이후 두 갈래의 삶, 즉 회복의 정치학에 응하는 삶과 '회복'의 테두리에 들어서지도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한다. 노근리 사건의 '사라진 여성들'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들로 구성된 이현수의 소설은 희생당한 '양민'을 재현하는 문제와 동떨어져, 학살 이후 여성의 삶이란 한 겹의 시선에서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국문핵심어: 6·25 전쟁, 학살, 노근리 사건, 양민(良民), 여성, 이현수,『나흘』, 의도된 산만함

1 들어가며

6·25 전쟁 중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일컫는 '노근리 사건'은 영화, 시, 소설,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어져 왔다.[1]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이현수의 소설『나

1 소설의 경우 정은용의『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다리미디어, 1994), 정구도의『노근리는 살아있다』(백산서당, 2003), 김정희의『노근리, 그해 여름』(사계절, 2005), 그리고

흘』은 고향 영동으로 돌아온 다큐멘터리 감독 김진경이,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마을의 과거를 살피며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마 채희의 죽음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된 진경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자 할아버지를 비롯해 뻐들네와 같은 마을 주민들을 한 명씩 취재해 나간다.

『나흘』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노근리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소설, 『노근리, 그해 여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김정희의 이 소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학살 당시의 잔인함보다도 학살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하는 물음이다. 이는 화자 은실의 할머니로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경우 더욱 강조된다. 끝내 '할머니'라는 익명의 인물로 남은 이 여성은 노근리 쌍굴 안에서 총격으로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와중에도 대를 이을 손자들만이 전부 죽어버렸다는 사실에 통한을 금치 못한다. 굴 안에서도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내보내려는 섬뜩하리만치 강한 의지를 선보이는 이 인물은, 동시에 학살 이후 억척스럽게 가족을 '삶'의 반경에 끌어다 놓는다. '벙어리'가 된, 반쯤 미쳐버린 두 손녀와 절름발이 아들에게 가정(家) 내에서 할 일들을 부여하며 어떻게든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녀는 제 아들을 딸 하나 딸린 과부에게 장가들게 하고 새 손자를 얻고는 그제야 흡족해한다.

근대 호주제가 상정하는 가(家)의 영역에 제 가족을 의탁하려 한 투쟁과도 같은 삶이 '나'의 할머니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나', 즉 은실은 이 소설에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할머니'로 이름 붙여진 인물이 전쟁과 여성 노인의 관계를 비추고 다른 소설들에 나타나는 전쟁과 여성 노인의 관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한 단서를 제공한다면, 은실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가?

새로 태어난 아들을 위한 금줄이 집 대문에 걸리고, 모두가 환히 웃는 집을 벗어나 밖을 배회하던 은실은 마찬가지로 입이 삐죽 나온 새 여동생 단비와 조우한다. 죽은 엄마와 동생들로 인한 죄책감으로 단비를 제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힘

이현수의 『나흘』(문학동네, 2013)이 노근리 사건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는 학살로 인해 두 자식을 잃게 된 저자 정은용이 노근리 학살 현장에 있었던 아내의 구술과 당시 미군의 군사 자료에 바탕을 두어 사건을 재구성한 글이다. 『노근리는 살아있다』와 더불어 이는 소설적 각색이 거의 없는, 르뽀에 가까운 글이라 할 수 있다.

겨워하던 '나'는 서로를 위로하며, 가족이 된다.

본고에서는 학살 이후 가족의 탄생을 그리는, 정확히는 가족 공동체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서 『노근리, 그해 여름』, 그리고 소설 『나흘』이 위치에 있음에 주목한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평론과 연구에 의해, 나아가서는 저자 스스로의 회고를 통해서도 '산만하다'고 일컬어진, 노근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현수의 소설을 다시 읽어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 기존 관점에서는 『나흘』에서 노근리 사건이 굳건히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여러 서사가 여기에 중첩되고 말았기에 소설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본고에서는 노근리 사건 '이후'를 그리는 이 작품이 '산만함'을 경유하여 가리키고 있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 설명하자면 이 글에서 논하는 『나흘』의 '산만함'이란 첫째로는 노근리 사건에 동학혁명, 내시 가문의 비화 등을 더해 놓은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둘째로 뻐들네, 서인영과 같은 여성 인물들을 데려다 놓고 주요한 사건을 이어 서술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들을 계속해서 소설에서 사라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이 글은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좇는 과정이 왜 산만하게 에둘러 표현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학살된 '양민(良民)'의 곁에 놓인 여성 화자를 좇아 물을 것이다.

2 "전쟁의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눈물" —노근리 사건을 재현하는 방법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전개된 영동 지역의 역사를 생략"하거나, 사건에 대한 탐구를 "밀도 있게 전개시키지 못한 한계"[2]를 지니고 있는 소설로서 노근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현수의 『나흘』은 일컬어진다. 이어서 "『나흘』이라는 작품에 제시된 내시 가문의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무

2 김남혁, 「노근리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67호, 민족문화연구원, 2015, 250쪽.

겁다. 그리하여,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소설의 핵심 주제인 '나흘 동안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초점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내시 가문의 조상과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또 한 편의 의미 있는 소설의 소재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3]라는 발언은 『나흘』이 노근리 사건의 참상을 힘껏 몰두하여 그려내는 데에 실패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을 밀도 높게 써내지 못한, 초점이 흐린, 즉 사건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지 않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소설 『나흘』은 그렇다면 어떤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가.

다큐 전문 감독인 '나', 김진경이 촬영을 위해 노근리로 향하는 것으로 『나흘』은 시작한다. 〈워낭소리〉가 종전에 없는 히트를 기록하자 전부터 노근리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장의 지시로 노근리 다큐가 야심차게 기획되는 와중, 영동 출신인 진경은 자연스레 총괄 감독직을 떠맡을 '위기'에 놓인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의 눈물", 곧 "진즉에 남들이 우려먹은 것"[4]을 어째서 다시 찍어야만 하냐고 성토하며 국장과 대립각을 세운 그녀는 결국 후배 박이 총괄을 맡고 자신은 그를 뒤에서 돕는 조건으로 다큐 제작에 발을 들인다.

> 노근리 쌍굴 앞은 봄 한철 청춘남녀들의 연애 장소로 아낌없이 이용되던 곳이다.
>
> 지린내가 짙게 밴 노근리 쌍굴에도 봄이면 달콤한 아카시아 향이 스몄다. 굴속을 지나던 연인들이 아카시아 향에 취해 '사랑해' 같은 낙서를 분필로 쌍굴 벽에 꾹꾹 눌러쓰곤 했다. 어린 날 노근리 쌍굴에 가면 시멘트 벽에 '경미야 사랑해' '조해진, 넌 오늘부로 내 거다' 따위의 분필 낙서가 어지럽게 쓰여 있었다. 노근리는 내게 그런 곳이다.(70)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었던 노근리 쌍굴은 진경에겐 청춘남녀들의 연애 장소로만 기억되어 온 곳이다. "왜 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노근리 사건을 함구하고 있었을

---

3 장경렬, 「노근리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가 갖는 의의를 찾아서—정은용, 제인 앤 필립스, 이현수의 소설 읽기」, 『동아문화』 제53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15, 126쪽.

4 이현수, 앞의 책, 75쪽. 이하 소설 본문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

까?”(83)라는 의문 속에서 진경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캐묻는다.

한편 진경에게 노근리는 어렸을 적 지독하게 따돌림을 당했던 장소로도 각인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 『나흘』은 그녀의 집안이 대대로 내시 가문이었음을 소개하는 데에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입양으로 대를 이어온 진경의 집안은 그 높은 토담과는 별개로 주변의 달갑지 못한 시선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로 인해 어린 시절 진경은 반 아이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난데없이 머리채를 잡히거나 끔찍한 악취가 가득한 청소도구함 속에 강제로 갇히는 등 온갖 수난을 당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떠난 뒤 매번 야심한 밤에 고향을 찾아오곤 했던 그녀는 이렇게 다큐 촬영을 계기로 삼아서야 노근리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나흘』에서 돌아온 ‘나’, 즉 진경이 알게 된 노근리 사건의 진상 중 하나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엄마 김채희에 관한 것이다. 그 ‘나흘’ 동안 코 반쪽을 잃고 흉측한 얼굴을 지니게 된 외조부와 심한 화상을 입은 외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 그리고 그 아이 채희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산짐승과 어울려 자라며 유사자폐증에 걸리고 마는데 아이는 어느 날 부모의 얼굴을 불로 소독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는 오두막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지른다. 지금 진경이 할아버지라 일컫는, 외조부의 사촌이었던 김태혁이 채희를 거두어 기른다.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그녀는 그러나 어느 날 노근리 쌍굴에 목을 매어 세상을 등진다. 진경의 추측에 의하면 엄마 채희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사생아인 나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마을 내 소문들을 듣고 “노근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332)했기 때문이다. 즉 학살의 피해자인 제 부모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그녀에게 몰려와 목숨을 끊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죽은 엄마에 관한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진경은 외조부모를 비롯하여 엄마, 그리고 어렸을 적 부모의 돌봄 없이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했던 자신까지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깨닫는다. ‘피’로 이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안이 때론 진실을 묻어가면서까지 얼마나 서로를 감싸며 지켜내주었는가를 체감한다. 이와 같은 지점을 눈여겨보았을 때, ‘떠난 나’의 귀환 서사로도 읽을 수 있는 이 소설은

혈연으로 결속되지 않은 제 집안의 관계망을 훑는 '나'의 여정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학살 이후 '가족이 된다는 것'을 돌이켜보는 이 소설은 진경이 평소 호감을 품고 있는, 이미 소설의 시작부터 그의 조카와 셋이 있을 때면 한 가족으로 오인당하곤 하던 후배 박 감독의 가슴에 그녀가 얼굴을 묻고 그간의 설움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결말을 장식한다. 힘들면 제게 시집을 오라는 반쯤 진담인 말을 건네는 박과의 대화 속에서 진경은 안정을 찾은 듯 보인다.

이렇듯 『나흘』은 노근리 사건을 경유해 진경의 외조부 내외와 엄마 채경의 사연, 나아가 그녀의 가문과 주종관계를 이루었던 막손아비-박막손-박기훈으로 이어지는 집안과의 오랜 앙금 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일을 담아내고 있다. 이 소설은 "희생당한 양민들의 눈물"이란 과거의 흔적으로 말라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나', 김진경의 서사라는 큰 줄기로 풀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렇다면 『나흘』에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물음을 이어 던지고자 한다. 이현수 소설의 '밀도 없음', 산만함에 기대어 이 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3 '선량한 국민'의 복원, 그리고 회복의 정치학이 남긴 것들에 대하여

노근리 사건은 흔히 '노근리 양민 학살'로도 불리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전쟁기 '양민(良民)', 다시 말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선량한 백성들, 무고한 국민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현재는 '양민' 대신 '민간인'이라는 표현이 두루 쓰이고 있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양민학살'로 일컬었다. 이 사실은 '양민'의 죽음, 그 이후의 정치학이 소실된 '선량한 국민'을 탐색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게 한다.

적어도 이현수의 소설 『나흘』을 주인공 격인 김진경을 중심으로 읽어낼 경우 이는 두드러진다. 마을 단위를 넘어 "단일조직이 아닌 각 지역조직이 서로 연대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진 세포조직을 느슨하게 연결"(18)해냈다는 자부심이 만연한 곳으로 설정된, 픽션을 가미한 이 소설의 배경 노근리는 마을 안팎의 연대를 기반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동학혁명의 무게감이 여전히 감돌고 있는 마을로 그려진다.

저자 이현수는 노근리 사건에 더해 동학혁명이라는 역사적 소재를 함께 끌어오니 소설이 무거워져 작품의 톤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걷어낸 것이 『나흘』이라고 밝히고 있다.[5] 작가 스스로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동학혁명과 관련한 대목을 대부분 덜어냈다고 말하지만, 동학혁명과의 긴밀한 연결을 토대로 마을의 특성을 소개해 나가는 소설 초반부의 전개는 소설 전체를 장악하며 그녀가 노근리 사건을 소재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를 암시한다.

> 동맹이라면 이곳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다. 맹렬하게 자빠질 듯이 걷는 저들의 걸음걸이는 동맹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198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인 조재벽 대접주가 여기 사람이다.
>
> 조재벽은 삼례 교조신원운동 때부터 서장옥, 전봉준, 김개남, 김덕명과 연대했다. 광화문 앞 복합상소운동, 그해 3월 보은과 원평의 척왜양창의운동을 거치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전봉준이 이끈 고부민란을 계기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과 뜻을 같이해 동학혁명에 앞장서게 되었다.
>
> 동학은 단일조직이 아닌 각 지역조직이 서로 연대하는 형태였다. 전국적으로 퍼진 세포조직을 느슨하게 연결하고 지도부는 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그중 조재벽 연원조직이라고 불렸던 조재벽 포는 이곳 황간과 영동, 청산, 옥천, 연산 일부, 금산, 진산 전체에 고루 퍼져 있었는데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고 결속력이 뛰어났다.(17-18)

즉 "애써 놓은 다리 위에서 다정히 지내며 무슨 동맹이라도 맺자고 할까봐 더럭 겁이 났"(17)다는, "나로 말하자면 이곳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았다"(19)라는 진경의 고백은 앞서 정리한 결말에 미루어 안팎의 "동맹"을 하나의 기조로 삼고 있는 이 마을로부터 계속해서 도피하려던 '나'가 동학혁명에서부터 촉발된

5 이현수, 「작가의 말」, 앞의 책, 339쪽 참조.

‘동맹’의 근저를 이해하고 자신도 그중 하나로 발돋움하는 성장서사를 『나흘』이 담아내고 있음을 읽어내게 한다.

마을의 ‘동맹’의 영역에 김진경은 박윤자라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발을 디디게 된 것으로 엿보인다. 진경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해있던, 마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죽치는 곳”(10)인 월류다방에서 근무 중인 윤자는 진경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다. 일수꾼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진경과 어린시절 이따금 어울리는 사이였던 윤자는 일찍이 결혼하여 노근리를 떠났다가 이혼 후 다시 내려온 것으로 서술된다.

윤자와 진경은 다큐멘터리 촬영 답사를 계기로 옛이야기를 나누며 우애가 돈독해진다. 눈에 띄는 것은 한 쌍의 콤비를 이루며 이들이 노근리 사건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뻐들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뻐들네가 주인으로 있는, 오만 가지 물건이 잡다하게 쟁여져 있는 가게인 명신상회에는 잡동사니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마을의 사연들이 쌓여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햇빛에 반사되어 유난히 희번덕거리는 의안을 끼고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 평생을 산”(26) 노인 뻐들네와 조우한 진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던 노인들이 정작 숨긴 이야기가 있다”(31)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를 파헤치려 한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이 뻐들네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녀의 뒤를 쫓던 진경이 알게 된 사실은 두 죽음, 즉 진경의 엄마 채희의 죽음과 뻐들네의 언니 명희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실제와는 별개로 노근리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 이 소설은 학살로 인한 공포가 끊이질 않던 그 나흘 동안 미군에 의해 여중생 명희가 강간을 당하려던 도중 살해당하고 마는 일이 있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명희가 쌍굴 안에서 박기훈, 즉 진경의 집안과 숙적 관계를 이루던 집안의 장자에 의해 미군에게로 이끌려 갔음을 드러낸다. 이후 명희가 죽게 되자 박기훈은 물론, 한자리에 있던 진경의 할아버지 태혁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명희의 일을 비롯한 노근리 사건 자체를 입밖에 꺼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 노근리 사건의 가닥이 잡히자 내 마음속에선 갈등이 시작됐다. 다큐감독인 김진경과 내시의 증손녀인 김진경이 치열하게 싸웠다. (…)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찍었을 경우, 어쩌면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이 엄습해오기도 했다. 내시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만큼 당했는데 나로 인해 명희의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도 있었다.(228)

『나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진실을 알게 된 진경이 인용문에서와 같이 치열한 고민에 빠진다는 점이다. 명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제 안에서 "다큐감독인 김진경과 내시의 증손녀인 김진경"이 겨루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길 선택했는지는 뻐들네와 대치하는 이어지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아줌마의 원수는 노근리 쌍굴에 갇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레이도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보다 높은 사람들이라고요!"

"난 자네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건 몰러. 단지 복수하는 방법만은 똑똑히 알고 있지. 원수들의 숫자가 많을 때는 말이여. 딱 한 놈만 정해서 재기를 못 할 정도로 확실하게 작살내면 돼. 내가차이 있고 죄가 중한 놈부터 한 놈씩 차근차근 작살을 내다보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겨."

"아, 아줌마……"

"내 비밀 하나 갈쳐줄까? 박기훈은 그 앵속을 워디서 구했을까? 집집마다 앵속이라곤 작은 꿀단지에 담긴 것 하나뿐일 텐디…… 암사내처럼 주변머리라곤 손톱만치도 없는 박기훈이 중독될 만큼 많은 양의 앵속을 이 시골구석에서 워찌키 구했을까? 그 생각은 안 혀봤제?"

"……!"

"그 앵속을 지속적으로 대준 건 나여. 처음엔 조금씩 주다가 차차로 양을 늘려갔지. 나중엔 아조 사족을 못 쓰더만…… 히히."(279-280)

지금까지도 복수감정에 사로잡혀있는 뻐들네에게 진경은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그녀의 원한은 바로 미군, 정확히는 미국을 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작중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불행의 구심점에 있던, 박기훈이 마약쟁이가 된 사건의 내막에는 바로 자신의 복수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기꺼워하는 뻐들네를 향해 진경은 모든 일은 "저 위에 있는, 보다 높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누구도 아닌 그들을 원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육중한 몸으로 열린 방문의 문틀을 꽉 메운 채 서 있던 뻐들네가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더니 뭔가를 접어 휙 뿌렸다. 그것은 순식간에 허공을 날아 내 얼굴로 떨어졌다. 장미향이 진동했다. 얼굴에 덮인 걸 걷어냈더니 놀랍게도 윤자의 노트북에서 번쩍거리던 원피스였다. 택배가 온 모양이다. 윤자는 원피스에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왔었나보았다. 원피스를 가져온 윤자가 뻐들네에게 얼마큼 당하고 갔을지 훤하게 보였다.
>
> "둘이서 무슨 수작을 꾸몄는지 모르지만 이딴 사탕발림엔 안 속아!"(313)

윤자의 아이디어로 뻐들네에게 색색의 원피스를 선물하며 진경이 태연히 건네는, "인터뷰를 해서 세상에 알리세요. 그러면 원수는 저절로 갚아질 테니까요"(314)라는 단언 혹은 요청은 하지만 묵살된다.

뻐들네와 진경의 대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가 예측 불가한 가운데, 이후 『나흘』은 더는 뻐들네와 진경을 붙여놓지 않는다. 엄마 채희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진경에게 뻐들네는 제게 "대못을 쳤"(328)던 존재로만 각인되며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현수가 이 소설에서 뻐들네라는 인물을 굳이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박기훈'과 '명희', 그리고 '뻐들네'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 노근리에 일부 악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창조해내고자 한 것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노근리 양민 학살'이라는 과거 명칭이 가리키듯 '선량한 국민'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일이 전쟁 이후의 주요한 과제였음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회복의 정치학은 마치 작중 진경이 소설 말미에서 독려하듯 "저 위에 있는, 보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냉전 체제'의 피해자로서 위치하는 '양민(良民)'의 테두리, 이후 가족, 마을, 국가로 확장될 공동체의 좋은(良) 구성원을 호출하고 다독인다.

전쟁 이후 공동체의 순기능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이 역할을 '양민'이라는 단어가 응집한다. 『나흘』의 김진경이 그 끈끈함이 대를 이어 의심받는, 내시 집안의 가족 공동체가 전쟁 이후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감싸는지를 보이며 전후(戰後) 가족의 한 형상을 노출하고 있다면 뻐들네는, 노근리 사건으로 한쪽 눈과 언니를 잃고 몸과 마음에 장애를 입은 이를 모두가 쉬쉬하며 '버들이'가 '뻐들네'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목소리를 청취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목한다. 그것도 노인이 되어서야 옷 몇 벌을 빌미로 긴 세월 어둠 속에서 켜켜이 쌓인 제 생각을 왜곡시킬 것을 요구하는 이들과 마주하고만 이 여성은 바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현수 소설의 산만함 속에 있다.

4 '버들이'가 '뻐들네'가 되기까지 —학살 이후의 곤경을 마주하러 가는 길

> "맨날 숨어 댕기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아는 사람은 표가 나잖아. 그랑케로 그거 안 볼라고 동생 친구 같은 사람들 보면 이래 가고 조래 가고 인제 그렇카고 살았지. (…)
>
> 나 때려죽인다고. 안 나간다고. 작두, 풀 써는 작두 있잖아. 그 작두 갔다가 모가지를 다 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살아… 가라꼬쟁이고 칼이고 못 놨둬. 나를… 저년 저 눈깔을 하나마저 빼놔야 방에 가만 들어앉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배지고나 뒤진다고… 눈깔을 마저 뺀다고. 송곳도 감추고 꼬챙이란 꼬챙이는 다 감추고 칼도 감추고. 내가 이래고 살았어."[6]

위 구술 채록이 일부 드러내듯 '학살 피해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놓인 이들, 곧 노근리 사건의 여성 피해생존자는 교육 기회를 상실당하거나,

6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편,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술기록 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05-111쪽; 소현숙, 「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상처와 치유—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 『동방학지』 제197호, 국학연구원, 2021, 214쪽에서 재인용.

가정폭력에 더 빈번히 노출되었으며, 혹은 가정을 꾸릴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 기총 사격을 당하는 동안, 기동성이 있는 젊은 남성들이 사격을 피하여 쌍굴을 탈출할 수 있었던 반면 노인과 아이들, 특히 여성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총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통계적 사실은 노근리 사건의 여성들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할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7]

강조컨대 뻐들네는, 뻐들네가 되고 만 인물은 사건 이후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을 다지는 소설『나흘』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그녀가 끝내 진경의 '호의'를 거절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소설 안에서 뻐들네가 더 이상 진경과 대치하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소거되고 만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물리친 용사'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상이군인들에 비해,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후 은폐된 기억으로서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고통의 기억이 강화"[8]되었다는 진술은 그중에서도 심한 부상을 입은, 다시 말해 장애를 갖게 된 여성이 처했을 곤경이란 그 구체적 면면이란 요원한 것이나, 더욱 가려져 왔을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흘』은 또한 학살 이후 장애 입은 여성의 목소리가 소설 속 김진경의 접근 방식으로는 청취되기 어렵다는, 곤란하다는 것을 동시에 가리킨다. 그렇기에 2020년 12월에 발표한 최근작『우리가 진심으로 엮일 때』[9]에 수록된「천사는 이렇게 탄생한다」와「우리가 진심으로 엮일 때」에서 이현수가『나흘』에서 잠깐씩 등장하고 말던, 김태혁의 첫사랑이자 박기훈의 아내인 서인영의 서사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우면서도 당연한 것이 된다.

서인영을 찾는 한 노인을 뒤쫓는 이 소설은『나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

7 관련하여『노근리 사건 사실조사 증언청취록』은 비록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진술 대상이 학살의 피해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으나, 사건 이후 곤경에 처한 여성의 존재를 그 수많은 이름의 나열로 증명한다. 노근리사건지원팀 편,『노근리 사건 사실조사 증언청취록』,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09 참조.

8 소현숙, 앞의 글, 208쪽 참조.

9 이현수,『우리가 진심으로 엮일 때』, 문학동네, 2020.

인물을 매개로, 지금은 부산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일 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러만 노근리에 내려온다는 서인영의 과거를 되돌아본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이 연작은 『나흘』에서 노근리 학살의 주위만 맴돌 뿐 여러 사건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채 소설이 끝나고 말았다는 그간의 아쉬움, 혹은 해석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10]

연관하여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노근리, 그해 여름』은 다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정상 가족'의 탈환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비켜나 있는 '나'와 새 여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만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 올리는 장면들을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단비야, 울지 마. 이 언니가 있잖아."

단비가 은실이 품에서 쌕쌕거리다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른들은 왜 고추만 좋아해?"

할머니가 유난히 손자를 찾는 게 어린 마음에도 못마땅했나 보다.

"어른들은 원래 남자만 떠받들고 살잖아. 하지만 이젠 개명 세상이 왔어."

"개명 세상이 뭐야?"

"새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야. 새 세상에서는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사람대접을 받는대. 그러니까 남동생이 생겼다고 샘낼 거 없어."

"참말?"

---

10 '양민', '국민', '정치화', '여성 서사', '피해자' 등의 키워드로 이현수의 소설을 다시 읽어내는 이 논문은 학살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왜 숨어있는 존재로 그려지는가, 어째서 왜곡되어 있는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현수의 이후 소설 전개는 그 힌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고의 관점에서, 거기엔 '숨은' 여성이 사건 이후 지나쳐왔을 '2차 피해의 공포'를 조명하는 일은 흐릿해지고, 뻐들네와 서인영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말해주듯 '괴물'이나 '천사'의 형상으로만 이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데 그치고 말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펼쳐질 이현수 소설의 전개 양상은 자체로 노근리 사건에 접근하는 소설적 방식의 한계 혹은 가치를 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 우린 이제부터 같은 편이야. 너, 같은 편이 뭔 줄 알지?"

단비가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도 너하고 난 전쟁터에서 용케도 살아남았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살아남은 건 더 슬픈 일이지."

"왜?"

"죽은 사람들을 늘 기억해야 하니까. 난 노근리 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11]

『나흘』과 함께 노근리 사건을 배경으로 학살 이후 가족의 탄생을 그리는 이 소설은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가족의 해체와 수난으로 표상하고, 비극의 극복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족의 복원에서 찾는"[12] 작품으로 일컬어진 바 있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처럼 은실이 이젠 "개명(開明) 세상"이 왔다고 말하며 전쟁이 지나간 자리, 그 폐허 위에서 노근리 쌍굴을 잊지 않으며 '밝혀야 할'(明) 것이 무엇인지를 골몰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의 '복원'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작품이 씌어진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

정리하자면, 전후에 생산된 작품들 속에서 가족은 훼손된 전체를 재조직화하는 상상적 준거로 상정되며 이 속에서 그려지는 '완전한 가족'의 꿈은 훼손된 주체를 복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곤 한다고 했을 때, 『노근리, 그해 여름』은, 나아가 『나흘』은 학살 이후 역설적으로 굳건해지기 마련인 가족의 '복원'만이 아닌 '가족'의 바깥, 그 곤경을 기꺼이 마주해 나가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며

기존 논의에서는 『나흘』의 '산만함'을 작품이 김진경과 김태혁이라는 두 화자의

11 김정희, 앞의 책, 226쪽.

12 유영진, 「전쟁과 가족 서사—김정희의 《노근리, 그해 여름》」, 『몸의 상상력과 동화』, 문학동네, 2008, 277쪽.

서사를 뒤섞어 배치하고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기술한 서사 방식에서 찾았다. 그러나 상술했듯 본고에서 초점화하여 바라본 『나흘』의 '산만함'이란 첫째로는 노근리 사건에 동학혁명, 내시 가문의 비화 등을 더해 놓은 것을 일컫는다. 그리고 둘째로 뻐들네, 서인영과 같은 인물을 데려다 놓고 주요한 사건, 이를테면 뻐들네와 김진경의 다큐 증언을 둘러싼 대치 등을 이어 서술할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여성 인물들을 소설에서 사라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산만함'은 『나흘』이 각각 '김진경'과 '뻐들네'라는 두 인물로 학살 이후 두 갈래의 삶, 회복의 정치학에 응하는 삶과 '회복'의 테두리에 들어서지도 못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13]

최근 들어 작가 이현수가 다른 소설 작품들을 통해 서인영의 잊힌 서사를 하나씩 추적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생존자, 그중에서도 여성의 서사를 '전쟁', '여성', '장애'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계속해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작 예감하여 그녀를 일찍이 사라지게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 노근리 사건의 '사라진 여성들'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이 이후의 소설을 구성해 나간다. 이는 앞서 정리했듯 희생당한 '양민'을 재현하는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끝으로 김진경을 중심으로 잘 완성된 하나의 다큐멘터리와 같이 마을의 서사들을 한 줄기로, 가족 공동체로 엮어 나가고 있는 이 텍스트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소되지 않은 무수한 질문들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쟁의 경험을 가족사의 방식으로 서사화하는 다른 작품들과 구별된다.

전쟁을 서사화한 많은 작품이 '강력한 가부장'을 추동하는 형태로 가족사를 구성했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이 소설은 '뻐들네', '서인영'과 같은 존재를 등장시키고는 이내 사라지게 한 것 이외에도 김진경의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엄마 채희는 노근리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 등을 흩뿌려놓고 거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뒤늦게 쏟아내는 진경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흘』은 한편으로 소설이 아버지의 빛나는 귀환 등을

13 이렇게 보았을 때, '내시 가문'이라는 작중 설정은 전후 가족 공동체에 작용한 회복의 정치학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 장치가 된다.

배치하며 훼손된 '주체'의 '복원'을 도우리라는, 자연스레 품게 되는 기대를 끝내 배반한다.

『나흘』은 전쟁 이후, 비밀이 가득한 제 마을에서 퍼즐을 꿰맞추는 탐정과 같은 역할을 주인공 김진경에게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결코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지점들을 마련해 놓는다. 사라진 여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암시하듯, 그리고 뒤미처 따라온 미스터리가 해소되질 않는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작품은 실패를 예정한 추리소설이 된다. 이 소설은 '산만'하기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배반과 실패를 곱씹게 된 독자는 그제야 이 소설이 학살 이후의 삶을 다루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전후의 삶이란, 정확히는 학살 이후 여성의 삶이란 한 겹의 시선에서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고통은 중층적이라는 진실을 미숙한 탐정이 등장하는 추리소설의 형식으로 이 소설은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이현수, 『나흘』, 문학동네, 2013.

단행본

김정희, 『노근리, 그해 여름』, 사계절, 2005, 1-231쪽.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편,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술기록 2』, 노근리국제평화재단, 2020, 105-111쪽.

노근리사건지원팀 편, 『노근리 사건 사실조사 증언청취록』,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09, 1-571쪽.

이현수, 『우리가 진심으로 엮일 때』, 문학동네, 2020, 149-200쪽.

논문

김남혁, 「노근리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67호, 민족문화연구원, 2015, 249-275쪽.

소현숙,「신체에 각인된 전쟁의 상처와 치유—한국전쟁기 노근리 피해자 구술에서 나타난 장애와 젠더」,『동방학지』 제197호, 국학연구원, 2021, 199-224쪽.
유영진,「전쟁과 가족 서사—김정희의《노근리, 그해 여름》」,『몸의 상상력과 동화』, 문학동네, 2008, 272-279쪽.
장경렬,「노근리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가 갖는 의의를 찾아서—정은용, 제인 앤 필립스, 이현수의 소설 읽기」,『동아문화』 제53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15, 101-128쪽.

Abstract

Massacred “Good People” (yangmin) and Women
—A Study of Intentional Distraction in Lee Hyeon-soo’s Novels Depicting the Period Following the Nogeun-ri Incident

Lee Hannah

Lee Hyun-soo’s novel *Four Days* deals with the Nogeun-ri Incident, a massacre of civilians carried out by US forces in Yeongdong, North Chungcheong Province, from July 26 to 29, 1950. In the novel, documentary director Kim Jin-kyung returns to her hometown of Yeongdong and looks back on the history of the village and her family in order to plan a television program on the subject of the Nogeun-ri Incident. The narrative has been criticized for how it overlaps here, and it lacks a sense of completeness. This paper examines what exactly Lee Hyun-Soo’s novel, which depicts the period after the Nogeun-ri Incident, implies through its treatment of “distraction.” This article asks the female narrator, who exists alongside the massacred “good people” (yangmin), why the process of revealing the facts of the Nogeun-ri Incident had to be expressed in a distracting manner. The narrative traces how the two characters lived two very different lives after the massacre: One is a life that responds to the politics of reconstruction, while the other is a life that is unable to even approach the space of “reconstruction.” Lee Hyeon-soo’s novel, which attempts to get increasingly closer to the “disappearing women” of the Nogeun-ri Incident, does not engage directly with the problem of reproducing the “yangmin” who sacrificed, and it demonstrates that the life of a woman after the massacre is never confined to a single point of view.

Key words: Korean War, Massacre, Nogeun-ri Incident, Yangmin, Women, Lee Hyeon-soo, *Four Days*, Intentional Distraction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